

의안번호	제464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월 일 (제 286 회)

**청원군 강내 · 부옹면 세종시 일원 주변지역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안**

제 안 자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제안연월일	2010년 1월 28일

청원군 강내·부용면일원 세종시 주변지역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안

의안 번호	제464호
----------	-------

제안연월일 : 2010. 1. 28.

제 안 자 :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 청원군 강내·부용면 일원을 세종시 주변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 가. 2009년도에 성명서,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일관되게 청원군의 세종시 주변지역 제외를 주장하였음
- 나. 행정구역의 편입문제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다. 충청북도, 청원군, 청원군의회의 의견 또한 청원군 강내, 부용면 일원 주변지역 편입반대

청원군 강내·부용면일원 세종시 주변지역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안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정운찬 국무총리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

1. 27일 정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지난해에 세종시 관련 성명서 및 의견서 등 6회에 걸쳐 일관되게 청원군 강내면과 부용면 일원을 세종시 관할구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회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와, 청원군, 청원군의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으로 청원군을 주변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법률안에 반영하지 않고 입법 예고를 강행한 것에 대하여 절망과 함께 실망감을 감

출 수가 없습니다.

행정구역의 편입문제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력히 주장하며 무엇보다 연기군의 경우 잔여지역을 포함시켜 달라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원군의 경우 주변지역 제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만 계속해서 커져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충북도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청원군 지역을 세종시의 주변지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10년 1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